

벌써 2025년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흐름을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절기에 따라, 말씀이 뜨문뜨문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사이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기에, 아마 집중(集中)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서에 관심을 가지고, 거듭 읽고 묵상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所望)을 가집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어렵거나 부담이 되지않아야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이해(理解)를 위해, 지난 시간의 리뷰(Review)를 해보자면,

1장의 전반부(前半)는, 서론(緒論)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소개(自己紹介)를 하다가, 복음(福音)을 소개(紹介)합니다. 바울은 <복음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1장의 후반부는, 이방인(異邦人)의 죄였습니다.,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그를 예배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두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갖 죄가 나왔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유대인의 죄,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강조되었는데, 그들은 자신은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대단한 위선(僞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가증스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문제였습니다.

3장은, 전반부는, 여러 질문들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진리의 주장에, 따른 질문과 반대논쟁들을 제시하며, 스스로 답변을 시도합니다. 4가지 질문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흑백을 함께 보시는 분이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빌미로, 인간의 죄를 합리화(合理化) 하거나, 하나님 뒤편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3장 중반의 말씀으로, 인간의 죄성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성적 접근 뿐 아니라 감성적(感性的)접근법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적 인간론(人間論)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12 / 13-18 / 19-20)

I. 첫 부분은, 하나님의 탄식(歎息)으로 시작합니다. (10-12절의 3절입니다)

10. 기록된 바, 의인(義人)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가 없다는 말인지요? 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나니, 없으며, 없도다 !!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였는데 사도바울에게서는 이것이, 없나니, 없으며, 없도다 !!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탄식>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선언(宣言)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식(歎息)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탄식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탄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성경은 장구한 세월을 통해, 우리에게 <의인(義人)의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시편 1편을 보면,

“1. 복(福) 있는 사람은, 악인(惡人)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walk), 죄인(罪人)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stand), 오만(傲慢)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sit) 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때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 4. 악인(惡人)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惡人)들은 심판을 전디지 못하며, 죄인(罪人)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도다. 6. 무릇 의인(義人)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惡人)들의 길은 망하리도다.”

시편1편의 구조에서 악인(惡人)은 4번, 죄인은 2번 등장 도합 6번이나 나오는데 반해서, 의인(義人)이라는 단어는 단 한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어렵단 얘기입니다. 의인(義人)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악인과 죄인들과 함께 walk, stand, sit 하지 않아야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이어야 <의인들의 모임(the assembly of the righteous)>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詩篇)과 잠언(箴言)을 보면, 100번도 넘게, <의인의 삶>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장탄식(長歎息)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가끔, 의인(義人)으로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言及)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창세기(創世記) 6장 9절에선, 노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義人)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 에스겔서는, 3명의 의인(義人)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에스겔서 14:14절인데,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公義)로(by their righteousness) 자기의 생명(生命)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뭔가, 이들의 의에 대한 언급에는, 한계(限界)가 있어 보입니다. by their righteousness,

노아는 8식구만 구원했으며, 다니엘과 욥은 자기생명만 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 희귀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의가 상대적의(相對的義)일뿐, 절대적인 의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 성경은, 심지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고모라에 가서 살다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간신히 살아난 롯을, 신약의 베드로사도는, 의로운 롯(Lot)이라 불렀습니다(벧후 2:7) 뭔가 찝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브라함을, 의인(義人)이라 불러야 하지 않겠는지요.

* 전도서 7:20 “선(善)을 행하고 전혀 죄(罪)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는 말씀이 그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本文)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절인 10절의 첫말은, “기록된 바”로 시작됩니다.

어딘지 출처를 분명하게 인용(引用)해 놓지 않았습디만, 역으로, 이것의 의미는 구약성도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시편 14:1-3절일 것으로 여깁니다. 거기보면,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들에도, 어김없이 <없도다. 없으니, 없도다>라는 3중 강조(強調)가 등장합니다.

* 그런데 조금더 나아가 읽어보면, 없도다라고 하는 여기에도, 의인들(義人)의 존재가능성(可能性)은 있어 보입니다. 14:4-5절을 읽어봅시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제심이로다.”

이 구절은, 의인이 희귀(稀貴)한 <불신의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의인의 세대’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 구절, <없도다. 없으니, 없도다>는 한명도 없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탄식(歎息)을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2000년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요한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II. 두 번째 부분은, 초점이, 인간의 진면목(眞面目)으로 옮겨집니다.(13-18절입니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平康)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적인, 구강내과(口腔內科)적인 관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악인들,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구멍, 혀, 입술, 입과, 발을 리얼하게 살펴봅니다. 죄악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발과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까지 인간의 완전부패(total corruption)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실제로 저들의 언어생활을 해부(解剖)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가지 직유(直喩)가 등장합니다.

1) **열린무덤** : 이것은, 시편 5:9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열린무덤’은, 당시의 장례방식(葬禮方式)과 상관이 있습니다. 당시 중동지방은, 바위에 굴을 파서 매장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체는 굴 안에서 부패하지만, 밖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돌이 옮겨진다면 어떨까요? 시체 썩는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은 열려선 안 되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침묵하면 아름다워 보이는데, 입을 열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언어생활입니다.

2) **독사의 독(毒)** : 이 비유는 시편140:1-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으며, 뱀 같이 그 혀를 날라뜰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毒蛇)의 독(毒)이 있나이다.”

이건 생물학적(生物學的)인 묘사(描寫)입니다. ‘살무사’나 ‘독사’는 그 어금니가까이에 **독이 든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다, 뱀이 무엇인가를 물면, 어금니가 눌러지면서 그 액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어금니가 물은 상처에 독이 흘러들어가, 뱀이 물은 것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毒)이 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교한 위장술책(偽裝術策)까지 있습니다. 혀입니다, 이 **혀는** 속이는 혀입니다. 원어(原語)상으로, 이

말은, 혀가 매우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즉, 거짓말을 하면서도, 말은 부드럽고, 진실해보이고, 꿀같이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해하는 독(毒)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동이 매우 신속합니다.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것은 이들의 행동의 민첩함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자들이 등장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11-12절 말씀으로 보면,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의 율법이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지 않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같은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인(義人)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11절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답(答)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이며, 치우치지 않는 자이며,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조건(條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思慕)하는데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 빠른 발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평강(平康)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간말종(末種)의 진면목(眞面目)**을,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살인, 방화, 폭력, 마약, 사기, 모함, 지나친 국가주의로 인해, 세상은 바람잘 날이 없는 전쟁과 침략과 세력다툼으로 점철(點綴)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세상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Fear of God.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계몽주의와 이상향을 믿지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를 찾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Ⅲ. 마지막, 3번째 부분은, 그런데도 **율법을 주신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19-20)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않는 길입니다.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審判)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세상의 법(法)의 목적(目的)은, <질서유지, 사회안정, 정의(定義)를 실현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예상을 뛰어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19절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법은 범법자(犯法者)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범법자(犯法者)로 만들어 겸손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법은 세상법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그것을 다 지키기에 너무나 버겁습니다. 세상법은 육체적으로 죽어야 살인입니다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살인(殺人)한 것도 살인(殺人)입니다. 형제(兄弟)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마음속에 음란(淫亂)을 품는 것만도 간음입니다. 마음으로만 범해도 음행이고, 마음에 이웃의 것에 대한 탐심(貪心)을 가지는 것조차 죄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선(善)을 이루자는 그 시도(試圖)를 우습게 생각하십니다. 아마도, 인간이 말씀을 지켜 선을 행위완전에 이르려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마 속으로 웃으실 것입니다.

물론 율법(律法)을 주신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법을 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의도(意圖)는 그들 스스로 그것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앞에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공부시간에 보았던 출애굽기(exodus)의 실제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주신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PLAN B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성막(聖幕)과 제사제도(祭祀祭圖)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제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깨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약간의 숨쉴 공간을 줍니다.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우리의 시도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진술은 우리의 구원론(救援論), 사죄론(赦罪論)에 매우 중요한 토대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恩惠)의 복음(福音)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하심을 얻어 보려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천국가려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歪曲)하고 곡해(曲解)하는 것입니다.

*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열심히 읽지않는 이유가 내 죄를 보기 싫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앙성숙의 과정인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정확하고 깊숙이 보아야 합니다. * 대충 보아선 안 됩니다. 내가 죄인(罪人)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나는 여전히 잘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백배 낫지> 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죄인(罪人)이라고 하는 ‘내숭’을, 떨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죄인의식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 처절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속 깊이 인정(認定), 고백(告白)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課程)을 거쳤습니다.

디모데전서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魁首)니라.” sinners; of whom I am chief(KJV)
sinners-of whom I am the worst.(NIV) 그게 무슨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겠습니까?

로마서 7:21-24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法)을 깨달았노니, 곧 선(善)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惡)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法)이, 내 마음의 법(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는 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이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빠져있는 이 <곤고함>은 뭔가요? 우리도 이 곤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곤고함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다음구절 7:25절이 그 답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다루어보게 될 것이지만 미리 맞춥니다. 7:25절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문제가 해결(解決)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소(解消)된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식(認識)이 바뀐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우리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성질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이 해탈은 불교의 해탈과는 다릅니다.

그는, 해결자(解決者)를 주목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자기(自己)라는 관점에서 주님이라는 관점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감사(感謝)가 나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복음(福音)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극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0. 기록된 바, 의인(義人)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가끔 인간을 동물(動物)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인간을 소와 나귀와 비교합니다.

이사야 1: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인간이 소나 나귀보다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26: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과 개를 비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6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돼지와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敎授)가 사경회(査經會)에서, 인간을 쥐에 비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람과 쥐의 유전자 99% 동일하기 때문에, 인간대신 실험대상이 되는 쥐들이 곤역을 치루고 있는데, 쥐의 특성 중 밝은 빛을 싫어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3: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한 것처럼, 인간도 쥐의 특성과 비슷하다 하겠습니까.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한 신사가, 대단히 화가 나서,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대답이 걸작(傑作)입니다. “당신이 참 옳습니다. 사람을 쥐에다 비한다는 것은 대

단히 불공정합니다. 나는 정말 사과합니다. 나는 쥐에게 사과합니다. 쥐들은 쥐가 행동해야 할 짓만 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행동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짓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안하는 짓을 하며, 동물보다 더 나쁜 짓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쥐에게 사과합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래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한사람아담, 한 가정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민족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안에 복음을 넣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율법외에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드리려면 인간이 자신들의 죄성을 깊이 각성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깊었습니다. 먼저 그의 한탄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안에 복음을 넣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도 없는 흉측한 동물일 뿐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 의지해서 살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